

타액 오염이 트레이 레진 및 변연 형성재와 Polysulfide 인상재의 접착력에 미치는 영향

김용학, 양흥서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본 연구는 개인용 트레이 레진과 변연 인상재에 따른 polysulfide 인상재의 접착제 접착강도를 비교하고 여기에 타액오염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1×1×1cm³의 레진 트레이 시편 135개를 만들고 재료에 따라 1) Quicky군, 2) Compound군, 3) Impregum군의 3군으로 나눈다. 각군을 다시 타액에 오염시키지 않고 접착제를 도포한 군을 S1군, 타액에 오염시킨 후 15초간 건조시킨 후 접착제를 도포한 군을 S2군, 타액에 오염시킨 후 바로 접착제를 도포한 군을 S3군으로 나누어 만능물성시험기를 이용하여 접착제의 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

접착제의 인장강도는 Impregum군, Compound군 Quicky군 순으로 나타났는데 Impregum군과 Quicky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타액의 오염도에 따라서는 Quicky군에서는 S1군, S2군, S3군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ompound군과 Impregum군에서는 S1군, S2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S3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S3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개인용 트레이 변연 형성재로 사용되는 Impression compound와 Impregum F는 가철성 보철의 인상재로 주로 사용되는 Polysulfide 인상재의 접착제와의 인장강도 면에서 만족할 만하다고 할 수 있고 개인용 트레이는 구강내에 시적한 후에는 세척하고 충분히 말린 후에 접착제를 도포해야 한다고 사료된다.